



첫째, 만기가 있다?

적립식 펀드는 계속 추가 불입할 수 있으며, 운용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아 만기가 없습니다. 하지만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해 저축약관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만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즉 미리 약정한 만기 이후에 펀드를 환매하면 만기 전 적립금에 대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. 결국 적립식 펀드에 서 말하는 만기는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 이를 만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. 은행예금 상품과 달리 펀드는 만기가 없으며 기간을 연장해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.

둘째, 만기 끝나면 더 이상 수익 없다?

은행예금 상품의 경우 만기가 끝나면 대개 적용 금리가 낮아집니다. 즉 만기 후엔 보통예금 이자만 주는데, 반면 펀드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투자자가 환매하기 전까지 계속 운용됩니다. 만기가 끝났다고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, 만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환매하지 않는 한 계속 펀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. 따라서 주식펀드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만기 이후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집니다. 결국 펀드의 환매는 만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을 때나 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.